2025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5년 9월 25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신 성 환　위 원
장 용 성　위 원
유 상 대　위 원(부총재)
황 건 일　위 원
김 종 화　위 원
이 수 형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김 언 성	감사	김　　웅	부총재보
채 병 득	부총재보	권 민 수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이 지 호	조사국장
장 정 수	금융안정국장	최 창 호	통화정책국장
최 용 훈	금융시장국장	윤 경 수	국제국장
주 재 현	외자운용원장	백 무 열	법규제도실장
임 건 태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　　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보고안건

<보고 제62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62호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이어서 관련부서는 9월 1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우선 다수 위원들은 주요 리스크 요인인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해 9.7 대책 이후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근 정부 정책의 평가가 균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외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추경 등 정부지출이 시장금리,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과거 경기순환 국면과 비교하면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아울러 은행 기업대출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유도하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함께 금융기관의 연말 유동성 관리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금년초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KOSPI) 거래대금을 넘어선 배경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금년초 미국의 親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진 데 주로 기인하며,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은 주요국과 달리 개인투자자 중심이어서 거래대금 수준과 변동성이 경제규모나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한편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2월 금융안정보고서 등 향후 점검시에 유념하여 살펴보겠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고 있어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는 여전히 잠재해 있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조적·경기적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의 기업 부실 증가로 관련 익스포저(exposure)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미국 관세정책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요인 변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